

창작극단 '다시'

2021 어린이 체험형 놀이극
제 멋대로 상상이



단체 소개, 작품활동(연혁)

창작극단 '다시' 소개

창작극단 '다시'는 사라져가는 연희와 전통성을 현대사회에 맞게 '다시' 재조명한다는 뜻에서 창단되었다. 전통예술을 재해석하고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창작극을 만들자는 모토로 2018년 창단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연희를 '다시'란 '새롭게 시작 한다'는 의미이자 '다시'재해석한다는 의미가 맞닿아 있는 단어이다. 전통예술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치를 알리고자 한다.

제 멋대로 상상이

어린이 음악극 '제 멋대로 상상이'는 “악·가·무(樂·歌·舞)”의 종합예술인 음악극 연희를 놀이를 통해 체험하고 놀이가 배움이 되는 체험형(참여형)공연이다. 놀이를 통해 감각기능을 발달시키고 오감을 자극하는 창의적 예술 공연이다. 전통이 지닌 의미에 충실하고 현대적 감각이 시도되는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단체 연혁

- 2018 홍천문화재단 주최 '한여름 밤의 클래식' 중 <축제의 연희>
- 2019 퍼포먼스 스토어 <예술로봄> 축하공연
- 2020 인천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예술인 온라인활동 <제 멋대로 상상이> 영상제작





조예원/대표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음악극과 노래연기 졸업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극 전공 졸업
현) 창작극단'다시' 대표
전) 극단'미추' 배우

국립창극단 레파토리 공연 <미디어>
마당극 <메밀꽃 필 무렵>, <변학도전>, <놀부전>
음악극 <푸른하늘 은하수> <신 콩쥐팍쥐네 황금똥>,
창작극 <별헤는소년>, <환경소리극별주부전>, <삼설기>
연희극 <보부상놀이>, <신뽕파전>, <장대장놀이>
연극 <남사당의하늘>, 코믹힐링극 <대박포차>
뮤지컬 <내가 만약 사람이면>



고범철/배우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타악과 졸업
현) 시흥시립전통예술단 단원
전) 서울예술단 연수단원 역임
현) 창작극단'다시' 창작부

시흥시립전통예술단 연희극<호조벌스캔들>
연희극<춤추는사자 추격하는광대>
연희극 <보부상 놀이>

제4회 기산국악제전 종합대상 수상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통령상 수상
제25회 대전전국국악경연대회 풍물부문대상

주요 제작진



송가영/배우

중앙대학교 음악극과 졸업
전) 정동극장 정단원 역임
현) 창작극단 '다시' 창작부
강산제 심청가 완창 발표회
연희극 <춤추는사자 추격하는광대>
연희극 <염라대왕이 사자를 만나는 날>
정동극장 <배비장전> 도창
정동극장 <가온>
정읍시립국악단 <정읍사는 착한여인>

제28회 금파 강도근 국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조성현/극작가

서울예술대학교 졸업
현) 창작극단 '다시' 창작부

2015전국대학생마당놀이 대상
세종시 문화예술회관 <연희 The Rock>
연희단 비류 <춤추는사자 추격하는광대> 각본
<제 멋대로 상상이> 각색



강현욱/음악감독

동아방송예술대학 졸업
현) 창작19다 대표
현) 극단 더늠 연출부
현) 창작극단 '다시' 작곡 및 음악감독

창작극 <커피스콘> 작곡
창작극 <싼마이 히어로> 작곡 및 음악감독
창작극 <보통의 택시> 작곡 및 음악감독
창작극 <헤다 가블레르 아템포> 작곡 및 연출
창작극 <조난> 작, 편곡 및 연출

어린이 음악극 '제 멋대로 상상이'

<시놉시스>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 전국을 떠도는 이야기꾼 '이야기'는 건너마을에 가려다 숲에서 길을 잃고 만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야기'에게 어디선가 징 소리와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목소리'는 자신을 바람님 이라 소개하며 '이야기'를 겁준다. 하지만 눈치 빠른 이야기는 '목소리'와 대화 하던 도중 수상한 점을 눈치채고 결국 '목소리'의 정체가 말하는 강아지 '상상이' 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상상이는 도망치려다 결국 이야기에게 사과하고 이야기는 상상이와 화해한다. 상상이는 사과의 의미로 자신이 가진 '상상상자'에서 한삼, 악기 등을 꺼내어 재주를 보여주고 이야기 또한 자신의 노랫소리를 들려준다. 아이들 (관객들) 과 함께 소리와 재주를 뽐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야기'는 '상상이'에게 함께 떠날 것을 제안하고, 진정한 친구가 된 '이야기'와 '상상이'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멋진 소리를 찾아 떠난다.



상상이는요?



국악기 체험



관객 체험형 놀이



버나놀이



한삼놀이

제 멋대로 상상이

국악기 체험

우리나라 전통악기 중 사물놀이 악기인 장구, 징, 팽과리, 북을 체험하면서 악기를 직접 보는 시각, 악기를 직접 만져보고 두드려 볼 수 있는 촉각, 악기가 상징하는 빗소리(장구) 바람소리(징) 천둥소리(팽과리) 구름소리(북) 를 통한 청각적인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 할 수 있다

-기대 효과

코로나로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 악기를 두드려 보고 입으로 소리를 내어 봄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가 된다



관객 체험형 놀이

극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국악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악기를 체험하고, 버나를 돌리고 던져 볼 수 있는 관객 참여형 음악극이다.

-기대 효과

유년기에 겪는 다양한 경험들은 '첫 만남' 인 경우가 많기에 국악 또한 '첫 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가 중요하다. 아이들이 국악을 더 이상 지루한 것이 아닌 즐거운 놀이로 인식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즐거운 경험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국악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작용 할 것이다.



제 멋대로 상상이

버나놀이

‘버나’란 연희자가 곡식을 빵을때 쓰는 쳇바퀴나 대접, 접시 등을 돌리는 재주 였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같이 돌려보며 아이들과 소통 할 수 있는 놀이 이다

-기대 효과

아이들에게 국악과 연희의 즐거움을 ‘교육’ 이 아닌 ‘놀이’의 방식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한삼놀이

친근한 우리나라 전통연희인 ‘탈춤’ 에 색체를 더해 아이들의 시각적인 호기심을 자극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 시킨다

-기대 효과

구름, 추임새, 놀이 등의 감각적 체험을 통해 정보가 아닌 감각을 공유한다



등장 인물



이야기꾼(조예원)

재밌는 이야기를 찾아 전국을 떠도는 이야기꾼. 호기심이 많고 영리하다. 재주많은 친구 '상상이'를 만나 '소리'의 즐거움을 깨닫는다.



상상이(고범철)

재주가 많고 말을 할 줄 아는 신기한 강아지. 장난을 좋아하고 뽐내기를 좋아한다. 더 멋진 소리를 찾아 세상을 떠돌며 자신의 재주를 갈고 닦고 있다.

창작극단 '다시'
DIRECTOR/ KOREAN TRADITIONAL ARTIST

대표 조예원

+82 010. 8907. 6099
E-mail : jjdal@hanmail.net